

김윤덕 “부동산 규제지역 확대”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위, 서울 등 집값 급등 지적
김 장관 “주중 부동산 대책 발표 목표”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일부 지역의 집값이 급등하면서 규제지역이 확대될 전망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가 부동산 대책은) 이번주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규제지역 확대에 대해서는 “불가피하다는 생각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25개 자치구 중 11개구가 문제인 정부 시절 집값 고점을 돌파했다”며 추가 부동산 대책의 세부 내용에 대해 질의했다.

김 장관은 전세대출의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 적용이나 보유세 확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금융 문제는 금융위원회, 세금 문제는 기획재정부가 주무부처라 금융과 세제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며 답변을 피했다.

그는 또 집값 상승에 대한 책임론에 대해서는 “6월 초 집권한 것을 고려하면 부동산 정책이 한두 달로서 정리되는 게 아니다”라며 “오히려 지난 과거로부터 흘러온 문제로 보는 게 맞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날 앞서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 9월 7일 발표한 새 정부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며 “노후청사·국공유지를 복합 개발하고, 공공주도 정비사업도 활성화해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6·27 대책과 9·7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6·27 대책은 대출 규제를, 9·7 대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접 시행 등 공공 주도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앞줄 가운데)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주택 공급을 골자로 한다.

김 장관은 “6·27 대책은 부동산으로 불리는 자금이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주요 억제책이었다”며 “9·7 대책은 현재 공급 절벽 상태이기 때문에 공급을 좀 늘려서 시장에 영향을 주고자 한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의 ‘두 번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의에는 “일단 부분적인 성과는 있었으나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강도 높은 제재를 도입하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대해서는 조정의 여지가 열렸다.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건설사에는 영업이익의 5%, 최소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장관은 과징금 30억원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묻는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조정 여지가 있다고 보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면서도 “고용노동부와 국토부 사이에는 온도차가 있다”고 답했다.

한편 건설현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줄줄이 소환될 예정이었던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은 증인 출석이 철회됐다.

/안상미 기자 smahn1@

3500억달러 對美 투자 ‘새 국면’ “美, 새로운 대안 제시… 검토 단계”

외교통일위, 직접투자 관련 질의
조현 장관, 국익기반 협상 강조
“외환 문제 등 종합적으로 판단”

한미 관세협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3500억달러 대미투자 실행방안에 대한 금융패키지의 대안을 제시한 이후 최근 미국 측에서 새로운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통위 위원들의 대미투자 관련 질의에 “미국 측에서 새로운 대안을 들고 나왔다”며 “그래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이어 ‘국익을 위해서는 대미 직접투



조현 외교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자보다는 관세율 인상을 받아들이는 게 낫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냐’는 질의가 나오자 “미국이 대안도 가져오고,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하

고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재차 말했다.

현재 한미는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두고 관세협상 타결에 갈등을 겪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3500억달러 전액 직접 투자를 요구했지만, 우리 정부는 이를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외환위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거부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조현 장관은 “직접투자로 하면 외환 문제도 발생하고 경제에 심각한 영향도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미국 측 요구의 문제점들을 다 설명을 했다”면서 “그런 이유(외환위기 가능성)로 인해 지금 협상이 늦춰지면서까지 우리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기술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필요”

》 1면 ‘中으로 새는 K-반도체’서 계속

검찰은 이들의 기술유출로 인해 삼성전자가 입은 매출 감소액이 지난해 기준 5조원선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협력사 부사장이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연구 소장 등 다른 직원 3명도 징역 1년~징역 1년 6개월의 실형, 다른 직원 1명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들은 SK하이닉스와 협업하며 알게 된 하이케이 메탈게이트(HKMG) 반도체 제조 기술과 세정 레시피 등 반도체 관련 핵심·첨단 기술 및 영업비밀을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중국 반도체 경쟁업체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HKMG는 반도체 공정에서 미세화에 따른 누설 전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기술로 전력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차세대 핵심 기술이다.

업계에서는 한국이 기술 유출에 대한 법정형은 강하지만 실제 처벌은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산

업 기술 보호법 위반으로 1심 판결이 내려진 81건의 사건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6.2%에 불과하다.

단속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된다. 글로벌 단위로 사업을 전개하는 기업 특성상 국내는 물론 해외 사업장과 계열사, 협력업체까지 유출 경로가 무한하기 때문이다. 이직을 시도하는 전직 임직원의 경우 유출이 의심되더라도 소재 파악이 어려워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학과 교수는 “미국 등 일부 국가는 기술 유출을 간접 행위로 간주해 중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국내는 집행유예가 많아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다”며 “국내에서도 양형 기준을 높이려는 움직임이 있으나 아직 기술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기업들도 직원 이직 시 국내 기업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등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며 “국가 차원에서 기업 간 인력 알선 및 체계적인 일자리 매칭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차현정 기자 hyeon@



Look for In-N-Out Burger®
인앤아웃 버거를 경험해보세요!

at

Schedule/Cheongdam
스케줄청담

G37, Seolleung-ro 152-gil,
Gangnam-gu 1/f, Seoul

서울 강남구 선릉로 152길 37 1층

Family owned and operated since 1948,
In-N-Out Burger will be in Seoul. For
those who have not yet experienced
In-N-Out, be sure to come and check us
out at this special promotional event.

We will be serving our famous:

1948년부터 가족이 운영하고 있는 있는
In-N-Out Burger가 서울에 찾아옵니다.
아직 In-N-Out를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은
본 행사에서 꼭 오셔서 저희를 만나 보세요.
판매 예정인 메뉴는 아래와 같습니다:

🔥 Double-Double® Burgers

더블 더블

🔥 Animal Style® Burgers

애니멀 스타일

🔥 Protein Style™ Burgers

프로틴 스타일

October 15, 2025
11am to 3pm

2025년 10월 15일 수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First come – first served.

Limited quantities available.

선착순 한정 수량 판매

Quality you can taste.™

맛으로 증명된 품질!

That's what a hamburger's all about.™

햄버거의 진수를 맛보세요!

